

KIA 10회 웃고 12회 울었다

〈25일〉 〈26일〉

두산과 잠실서 이틀 연속 연장 혈투 '장군 명군'



10회에 웃었던 KIA가 12회에 울었다. KIA 타이거즈가 26일 잠실구장에서 열린 두산 베어스와의 경기에서 연장 12회 유민상의 끝내기 희생플라이로 3-4로 패했다.

이틀 연속 전개된 연장 승부였다. 25일 마무리 윤석민의 시즌 첫 블론 세이브로 10회까지 가는 승부 끝에 5-4 승을 챙겼던 KIA는 26일에는 연장 12회까지 힘겨루기를 해야 했다.

연장 10회 승리의 주역이었던 김다원의 실책과 한승혁의 실점으로 3-1의 리드를 지키지 못하면서 마무리 윤석민이 이틀 연속 마운드에 소환됐다. 전날 승리 투수였던 윤석민은 이날은 패전투수로 마운드에서 내려왔다.

집중력 있는 수비를 선보였던 KIA가 3-1로 앞선 7회 실책으로 주지 않아도 될 점수를 줬다. 최영필

이 최재훈에게 우전안타를 맞았다. 우익수 김다원이 공을 빠트리면서 타자주자가 3루까지 진출했고 김재훈의 희생플라이로 3-2로 점수차가 좁혀졌다.

임준섭이 급한 불을 끄지만 8회에는 한승혁이 흔들렸다. 1사에서 홍성흔의 타구가 유격수 글러브를 스치고 외야로 향했다. 오재원의 2루타가 이어지면 승부는 3-3 원점으로 돌아갔다. 9회 1사에서 한승혁이 민병현을 볼넷으로 내보낸 뒤 정수빈에게도 3개의 볼을 연달아 던지자 KIA 벤치가 윤석민을 투입하는 강수를 줬다. 전날 2.2이닝을 소화했던 윤석민은 스리볼 상황에서 등판해 초구에 볼을 넣으며 정수빈을 그라운드로 내보냈다. 1사 1·2루가 됐지만 윤석민이 3루수 땅볼과 중견수 플라이로 쓰리아웃을 만들며 승부를 연장으로 끌고갔다.

경기 전 "상황이 되면 마운드에 또 오르겠다. 준비를 하고 있다"고 언급했던 윤석민이었지만 그의 이날은 끝이 없었다.

10회 1사에서 우전안타로 출루한 강한울이 도루

실패로 물러난 뒤 필의 우익수 플라이로 이날이 종료됐다. 나지완의 삼진으로 시작된 11회도 삼자범퇴로 끝나고, 12회 공격 역시 삼자범퇴로 마무리되면서 KIA의 승리 기회는 사라졌다.

그리고 12회 마지막 수비에서도 윤석민이 마운드에 올랐다. 김현수를 1루수 앞 땅볼로 처리하며 큰 고비를 넘겼지만 정진호의 타구가 우중간을 갈랐다. 수비수들이 주춤거리는 사이 타자주자가 3루까지 향했다. 오재원의 고의 사구 이후 대타 유민상의 타구가 중견수 김호령의 글러브로 향했다. 승부가 가능했던 거리에서 좋은 송구가 나왔지만 공은 포수 이종구의 미트를 지나 떨어졌고 정진호의 끝내기 득점이 기록됐다.

생애 첫 선발로 나선 홍건희에게도 아쉬운 경기였다. 홍건희는 첫 선발 등판을 5이닝 5피안타 2사구 1탈삼진 1실점으로 막으며 자신의 최다이닝(5이닝), 최다투구(82개)수를 경신했지만 팀의 패배로 빛이 발했다.

패장이 된 김기태 감독은 "수비의 중요성을 일깨운 경기였다. 선수들 수도 많이 했다"고 언급했다.

※잠실=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2015 춘계 중학교 야구대회 우승을 차지한 충청중 선수들이 경기 후 포즈를 취하고 있다. <광주시야구협회제공>

충청중, 진흥중 꺾고 우승... 춘계 야구대회 광주대표에

충청중이 2015년도 춘계 중학교 야구대회 우승을 차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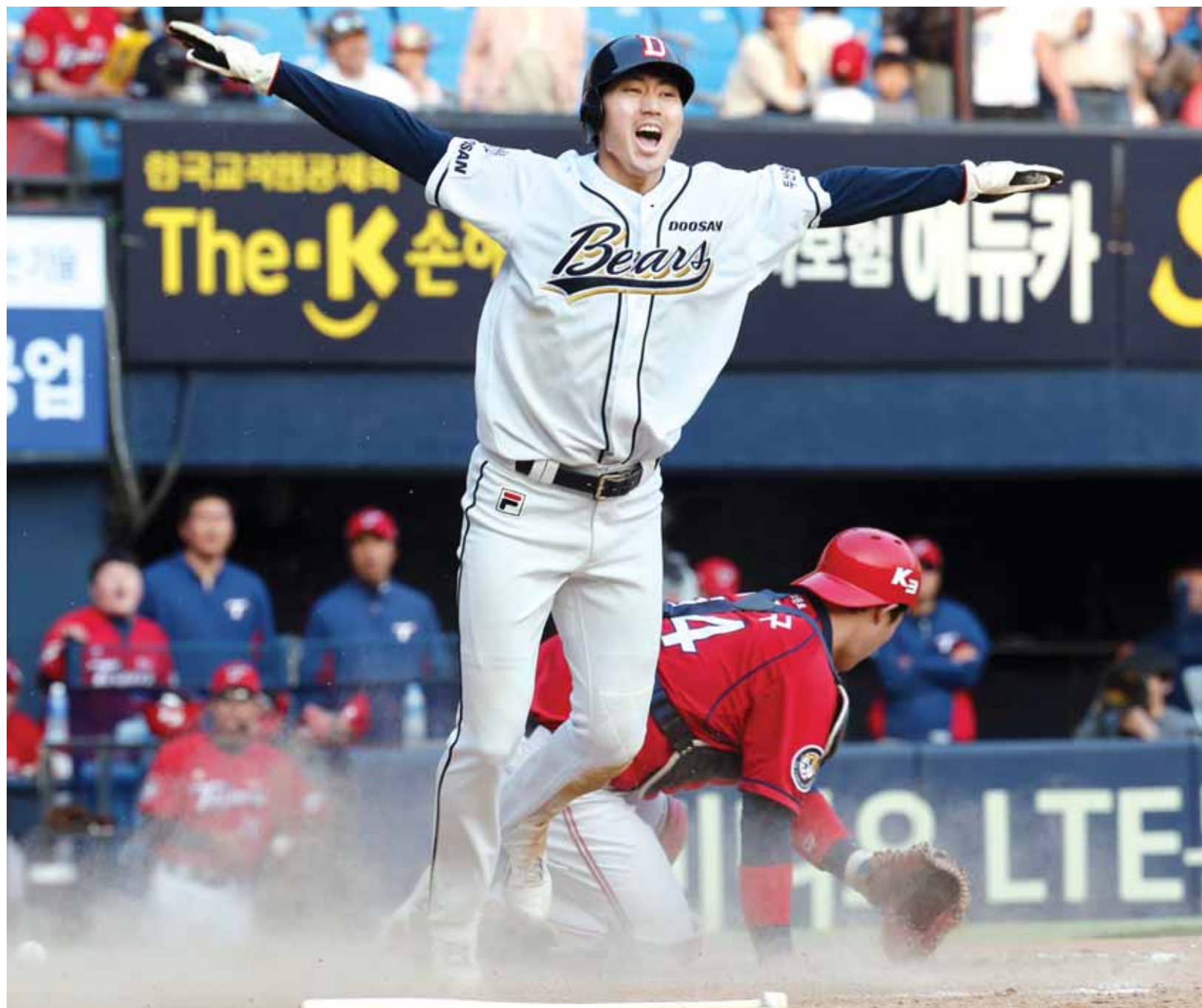
충청중은 최근 무등경기장 야구장에서 열린 춘계 중학교 야구대회 결승에서 진흥중을 7-0으로 꺾고 대회 정상을 밟았다. 무등중과의 첫 경기에서 8-0, 6회 콜드승을 기록한 충청중은 동성중을 4-1로 누르며 결승에 진출했다.

춘계 대회 패권을 차지한 충청중은 오는 6월 목동·신원에서 열리는 제62회 전국 중학 야구 선수

권대회 광주 대표로 출전하게 된다.

◇시상내역

▲최우수선수상=서유신(충청중)▲우수투수=이명기(충청중)▲타격상=박시원(0.800·동성중)▲최다도루상=유장혁(3개·동성중)▲최다타점상=김동휘(4타점·충청중)▲감투상=박시원(무등중)▲미기상=최인기(무등중)▲감독상=나갑남(충청중)▲지도상=김동민(충청중 야구부장)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26일 서울 잠실구장에서 열린 2015 타이거뱅크 KBO리그 KIA 타이거즈와 두산 베어스의 경기 연장 12회말 1사 2·3루 상황에서 두산 유민상의 중견수 희생플라이 때 홈을 밟은 정진호가 기뻐하고 있다. /연필뉴스

파비오 선제골 못 지키고 ...

광주 FC, 목포 흥경기서 서울과 1-1



2무1패로 광주 FC의 목표 흥경기 일정이 마무리됐다.

광주 FC가 26일 목포국제축구센터에서 열린 FC 서울과의 흥경기에서 파비오의 선제골을 지키지 못하면서 1-1 무승부에 만족해야 했다.

이번 경기를 끝으로 지난 12일 전북 현대전, 18일 성남 FC와의 경기 이후 목표 3연전 일정도 마무리됐다. 전북에 2-3 역전패를 당했던 광주는 성남과의 경기에서 0-0 무승부를 기록했고, 서울과도 1-1로 승부를 가리지 못하면서 목포 3연전을 2무1패로 끝냈다.

지난 성남전에서 페널티킥 실축으로 자존심을 구겼던 브라질 용병 파비오가 선제골의 주인공이 되면서 앞선 실수를 만회했다.

전반 22분 파비오와 조영태가 멋진 호흡을 과시하며 서울의 골대를 뚫었다. 조영태가 중원에서 길게 올라온 공을 잡아 왼발슈팅을 날렸다. 발을 떠난 공은 골대를 맞으면서 다시 튀어나왔고

이번에도 조영태가 공을 잡아 왼쪽에서 올라오던 파비오에게 패스를 했다. 공을 받은 파비오는 과감하게 왼발 슈팅을 날리면서 골망을 흔들었다. 기다렸던 파비오의 시즌 첫 골이 터졌고, 조영태의 시즌 1호 도움도 기록된 순간이었다.

그러나 전반 40분 광주의 골문이 뚫렸다. 서울 고요한이 김치우의 패스를 받아 오른발로 슈팅을 날리면서 1-1로 승부를 제자리로 돌렸다.

후반에도 양팀의 공방전이 전개됐지만 끝내 골문은 열리지 않았다. 후반 추가시간에 박선홍이 오른발로 감아찬 공이 상대 수비수를 맞고 나가면서 코너킥이 선언됐지만 마지막 기회를 살리지 못한 광주는 1-1 무승부로 경기를 끝냈다.

목포 고별전을 치른 광주는 5월 3일 오후 2시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전남 드래곤즈와 '열로 더비'를 갖고 정식 홈경기를 치른다.

이에 앞서 29일에는 대전으로 건너가 대전 시티즌과 FA컵 16강 진출을 다툰다. 경기는 오후 7시30분 시작된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치열한 공중전 26일 목포 국제축구센터에서 열린 광주FC와 FC서울의 경기에서 광주FC 수비수 정준연이 볼을 다루고 있다. <광주FC 제공>

시즌 첫 블론세이브에 머쓱한 윤석민 "나는 승도 많은데..."

덕아웃 특·특

▲"나는 승이 많잖아요."=승리투수가 된 것이 속스럽고 미안했던 마무리 윤석민이다. 윤석민은 지난 25일 두산전에서 시즌 첫 블론세이브를 기록했다. 4-3으로 앞선 8회 1사 1루에서 한승혁에 이어 등판한 윤석민은 병살타로 이닝을 마무리했지만 9회 1사 1·2루의 위기에 몰렸다. 정수빈을 고의 사구로 내보내며 만루 작전을 구사했지만 김현수의 희생플라이로 경기가 4-4 원점으로 돌아갔다. 윤석민의 첫 블론 세이브가 기록되면서 한승혁의 승리도 날아갔다. 이후 10회 연장 승부에서 KIA가 김다원의 적시타로 5-4를 만든 뒤, 윤석민이 10회를 삼자범퇴로 막으면서 승리투수는 윤석민이 됐다. 경기가 끝난 뒤 승리의 하이파이브를 하던 윤석민은 한승혁을 꼭 안아주면서 눈길을 끌었다. 윤석민은 "나는 승도 많은데 (한)승혁이가 승을 챙겼으면 좋았을 것이다. 승을 날려서 미안했다"고 설명했다.

▲"내가 못 잡아서 그래요."=한승혁의 승리를 날려서 미안했던 윤석민, 윤석민의 어깨를 무겁게 해 미안한 최용규였다. 전날 4-3으로 앞선 9회말 1사 2루에서 민병현이 때린 타구가 2루수와 우익수 사이로 향했다. 2루수 최용규가 쫓아갔지만 공은 글러브를 맞고 그라운드로 떨어졌다. 이후 정수빈의 고의 사구로 만들어진 만루에서 김현수에게 희생플라이를 맞으면서 경기가 4-4가 됐다. "깜깜하게 마무리를 하지 못하고 있다. 결과가 좋지 못한 점이 아쉽다"고 취재진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던 윤석민. 지나가던 최용규가 "내가 공을 못 잡아서 그랬다"며 미안한 마음을 전했다.

▲"선수들이 좋아하네요."=연장전전에서 얻은 짜릿한 승리에 대한 김기태 감독의 소감이었다. 김 감독은 "중요한 경기에서 선수들이 잘해서 이겼다. 선수들이 많이 좋아했다"고 웃었다. 9회말 동점 뒤 끝내기 상황까지 몰리자 김 감독은 마운드에 올라 야수들을 소집하기도 했다. 김 감독은 "관중도 많이 와 계시고 희열있는 경

기다. 이길 수도 질 수도 있는 상황을 앞둔 경기라 멋있지 않느냐. 이런 경기를 즐길 줄 알아야 한다. 심리적으로 부담없이 하자고 말했다"고 밝혔다. 김 감독의 주문대로 집중력 있는 플레이를 한 KIA는 끝내기 주자를 막은 뒤 10회 기쁜종은 승리를 거둘 수 있었다.

▲"필소닉이예요."=25일 연장 끝내기 승리는 필의 전력질주가 있었다. 10회초 선두타자로 나온 필은 유격수 앞으로 공을 때린 뒤 전력으로 1루로 향했다. 두산 유격수 김재호가 느긋하게 공을 처리하는 사이 필이 먼저 베이스를 밟으면서 내야안타가 기록됐다. 고영우의 희생번트로 2루로 간 필은 김다원의 우전안타 때 다시 전력질주를 하며 역전 득점을 만들었다. 경기가 끝난 뒤 통역을 담당하고 있는 최병환 과장은 "필 소닉이었다"고 활짝 웃었다. 리그를 대표하는 빠른 발의 이대형(kti)이 '슈퍼소닉'이라는 애칭으로 불리고 있다.

/잠실=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